

분배정의와 절차정의가 보상의 불만족에 미치는 효과*

장 성 수

한양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에서는 분배정의에 관한 선행연구의 개관을 통하여 공정 분배원칙으로서, 형평분배뿐만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친숙도 및 상대방의 결핍상황에 따라, 균등분배 및 욕구기준 분배가 우세할 것임을 가정하였다. 또한 보상에 대한 불만족에, 절차정의의 중요요인이 되는 분배절차에 자신이 관여된 정도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상대방이 결핍조건에 있을 때에는 과소보상 불형평에 따른 불만족이 경감될 것이다. 둘째, 친숙관계에서는 과소 및 과다 불형평 분배에 따른 불만족이 소원관계에서 보다 적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분배를 했을 때가 타인으로부터 분배를 받았을 때 보다 보상에 대한 불만이 적을 것이다.

본 연구는 가상적 공동작업상황을 통하여 보상이 균등배분된 조건에서 분배형태(형평, 과다, 과소), 친숙도(친숙, 소원), 상대방의 결핍요인(비결핍, 결핍) 및 분배자요인(자신 분배, 제삼자 분배)을 조작하였다. 이때 결핍요인과 분배형태를 피험자간 요인으로 하고, 나머지가 반복 측정된 4원 요인설계로 상기 가설들을 검토하였다.

분석된 결과에서 결핍 \times 분배형태, 친숙도 \times 분배형태, 분배자 \times 분배형태의 2원 상호작용을 통하여 본 연구의 가설들이 모두 지지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사회적 상황을 친숙상황과 소원상황, 이기적 상황과 이타적 상황, 주는 상황과 받는 상황으로 개념화한 맥락에서 상황에 따라 형평원칙의 중요성이 다를 것임을 논의하였고, 이에 형평이론의 제한점 내지는 정교화의 필요성을 고찰하였다.

* 본 연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이 헌남 조교에게 감사한다.

“진리가 사상체계의 제 1 덕목이라면 정의(Justice)는 사회제도의 제 1 덕목이다(Rawls, 1971, p. 3)”라고 표현될 정도로 정의의 문제는 인간의 역사를 통하여 가장 중시해온 문제 중의 하나로, Aristotle에 까지 소급되어 현재 까지 수없이 논쟁되어 왔다.

정의는 이미 Aristotle이 언급한 바와 같이 응보 정의(retributive justice) 분배 정의(distributive justice), 절차 정의(procedural justice) 등의 여러 종류로 분류될 수 있으나 Aristotle 자신을 비롯하여 그 이후 정의문제를 다룬 많은 철학자들의 주 관심은 분배정의의 문제였다. 즉 개인들에게 부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가 정의문제의 핵심을 이루어 왔으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회적 정의’는 분배 정의로 통용된다.

이러한 철학에서의 정의 문제에 대한 연구들은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정의로운가?”라는 당위론적, 규범적인 해답을 추구하는 것으로 환원된다.

예를들면 Aristotle의 개인의 공적(merit)에 비례하여 분배하여야 한다는 비율적 분배(proportionate distribution), Hobbes의 개인의 지위와는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진 계약에 따른 분배, J. S Mill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적 원칙에 따른 분배, 그외에도 최근의 Rawls에 따른 자유의 균등과 보상의 불균등(최소 이익자에게 이익이 되게 하는 정당한 불균등)을 원칙으로 한 새로운 계약론적 입장 등에서 분배 정의 문제의 당위론적 해답을 위한 철학자들의 뿌리 깊고 지속적인 노력과 대립을 살펴 볼 수 있다(Cohen & Greenberg, 1982, 참조).

반면에 심리학에서는 분배 정의의 개념이 1960년도 초기에 와서야 Homans(1961)에 의해 도입되어 그 이후 많은 연구들이 활발하게 수행되어 왔다. 분배 정의에 대한 이러한 심리학적 연구는 경험과학으로서의 심리학 자체의 성질이 그러하듯이 어떻게 분배하여야만 정의로운가?를 물음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분배하며 어떻게 분배되었을 때 공정하게, 또는 불공정하게 지각하며, 이때 인간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문제삼는다. 즉 공정 분배의 당위적 원칙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분배에 관련된 일체의 심리적 과정을 이해하려는 것이다.

Homans의 연구(1961)이후, Blau(1964)는 그의 교환 이론에서 정의의 역할을 논의하였고 이어서 Adams(1965)가 정의를 형평(equity)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불형평의 이론을 체계화하였다. Adams의 초기 불형평 이론의 핵심은 자신의 투입(input)과 성과(outcome)의 비율이, 비교대상이 되는

타인의 투입과 성과의 비율과 다를 때 불형평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불형평은 개인의 심리적 긴장을 유발하며, 이때 긴장의 크기는 불형평의 크기에 비례하며 개인에게 이러한 긴장은 불쾌한 상태이므로 개인은 이러한 긴장을 제거하도록 동기화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형평이론은 초기에 주로 산업장면에서 구성원들의 사기(morale) 및 업무수행을 높이려는 실용적 목적에서 작업동기와 관련되어 많은 연구가 되어 왔다. 그러나 형평이론은 그후 Walster 등(1973, 1976)에 의해 수정, 보완, 확장되어, 인간의 사회적 행동을 설명하는 사회심리학의 주요 이론으로 체계화되었다.

이러한 형평이론은 그 자체가 기존의 사회심리학에서의 이론과 전혀 관계 없는 독립적인 이론이 아니라 그 모체로서 인지 부조화 이론(Festinger, 1957)과 교환 이론(Homans, 1961)의 몇 측면을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넓게는 Walster, Berscheid와 Walster(1976)가 언급한 것처럼 학습이론, Freud 이론까지도 관련된다. 이들은 형평이론을 상기 이론들을 포함하는 보편적인 사회심리학적 이론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사회심리학에서 기존의 소위 소규모이론(mini-theory)으로 설명되었던 별개의 현상들을 형평이론으로 재 해석하고 기존의 이론으로 적절히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을 설명하려고 한다. 특히 인간의 상호작용 영역중에서 사업관계(business relationship) 착취적 관계(exploitative relationship), 이타적 관계(helping relationship) 그리고 친밀관계(intimate relationship)에 까지도 형평이론을 적용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Adams & Freedman, 1976, 참조).

그러나 형평이론은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 비판되어 왔다(한덕웅, 1983, 참조). 이들 중 특히 본 연구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형평이론에서 주장되는 것처럼 형평분배만이 유일한 공정분배가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Lerner(1975)는 사회적 행동에서의 정의 동기(justice motive)를 논하면서 정의로운 분배의 지각은 지각자와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unit 관계, nonunit 관계, 동일시 관계), 또한 지각자의 지각 대상에 따라(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상황) 달라지는 바, 형평분배 이외에도 균등 분배, 욕구에 따른 분배, 법에 의한 분배 등등의 다양한 분배형태가 있을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Sampson(1975)은 역사적,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폭 넓게 형평분배와 균등분배를 논하면서 분배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Tumin(1953, 1963)의

입장에 근거해 형평분배만이 필연적이며 자연적인 분배원칙이 아님을 주장하였다. 균등분배 원칙도,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서 볼 때 형평분배와 마찬가지로의 분배문제 해결의 주요 기능을 하여온 것을 밝히고, 이 두 분배원칙 중에서 어떤 것이 우세한가는 그 사회의 역사 및 문화의 특성을 반영해 준다고 보았다. 즉 한 사회에서 형평과 균등분배 중에서 어떤 원칙이 우세할 것인가는 그 사회의 문화, 역사적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으로, 예컨대 자본주의적 경제체제가 중심이 되는 서구 사회에서는 균등보다는 형평의 원리가 우세하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형평분배와 균등분배를 논의하면서 개인간 상호작용의 목표(interaction goals)와 개인의 경쟁, 협동의 지향성, 성역할 사회화(sex-role socialization) 등과 관련하여 두 분배형태의 사회심리학적 의미 및 기능을 논하였다. 이를 요약해 보면 형평분배는 인간관계가 이익 추구를 위한 수단적이고 과제 중심적, 경쟁적, 개인주의적 관심이 우세한 경우에 적용되며, 반면에 균등분배는 개인간의 사회정서적 측면이 중심이 되어 인간관계 그 자체가 중시될 때, 그리고 협동 내지는 공동적 관심이 우세한 경우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두 형태의 분배원칙 즉 형평분배와 균등분배의 특성은 형평이론에 대한 비판과 논쟁으로 야기된 많은 경험적 연구들에서 검토되었다. 초기의 많은 연구들에서 투입이 동일한데 보상이 균등하게 되지 않았을 때에는 피험자들이 보상을 동일하게 재분배함을 밝혀, 형평이론이 지지됨을 주장하였다(Leventhal, Allen & Kemelgor 1969; Leventhal & Bergman, 1969; Leventhal, Weiss & Long, 1969).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는 투입이 동일하기 때문에 형평과 균등분배가 구분될 수 없다는 점에서 비판된다. 그렇지만 투입을 불균등하게 하여 이러한 문제를 배제한 몇몇 연구들에서 균등분배보다는 형평분배가 일어남을 밝혀 형평이론을 지지하였다(Leventhal & Anderson, 1970; Leventhal & Lane, 1970; Leventhal & Michels, 1969).

반면에 상기한 연구들과는 달리 비록 투입이 다를지라도 피험자들이 보상을 균등분배함을 제시한 연구들이 있어 (Morgan & Sawjer, 1967; Wiggins, 1966), 형평 대 균등분배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불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형평 대 균등분배를 다룬 연구들에서의 불일치는 상황적 요인을 개재시킴으로써 설명될 수 있다. 형평분배를 지지하는 연구들은 피험자들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었는 데 대표적인

예를 들면, Leventhal과 Lane(1970)의 연구에서 상대방과의 직접 대면이 되지 않는 경우였다. 그러나 형평보다는 균등분배의 결과를 보인 연구 ; 예를 들면 Wiggins (1966), Morgan과 Sawjer (1967), Kahn(1972) 등의 연구들은 상대방과의 관계가 지속될 수 밖에 없거나 그것이 암시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형평과 균등분배의 대립은 실험상황에서 조작된 상대방과의 관계의 지속성여부로 설명되어 질 수 있으며 Shapiro(1975)는 이러한 상호관계의 지속성 조작에 따라 분배형태가 다름을 직접적으로 밝혔다. 여기에서, 상호관계의 지속을 위하여는 그만큼 긍정적인 인간관계가 증시할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렇게 볼 때 상기한 연구들은 Sampson(1975)의 형평과 균등분배가 인간관계의 성질에 따라 결정된다는 주장을 실증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인간에 있어 형평분배만이 보편적, 자연적인 원리가 된다는 형평이론에 제한점을 시사해 준다.

분배정의에 관한 이상의 형평과 균등분배 이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인간의 분배원칙으로 욕구에 따른 분배(need distribution)를 간과할 수 없다. 이는 형평분배와 달리, 개인의 기여 또는 투입량에 관계없이 보상이 욕구되는 정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다. Schwartz(1975)는 욕구기준 분배에 개재되는 심리적 과정을 논의하면서 이 분배가 개인 자신과 사회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으로 형성되는 또 하나의 분배원칙임을 주장하였다. 이 욕구기준 분배는 인간이 이기적 존재임을 기본명제로 출발하는 형평이론으로서는 설명이 적절치 못하다. 왜냐하면 욕구기준 분배는 자신의 투입량이 많을지라도 타인의 욕구 수준, 즉 곤경, 결핍수준을 기준으로 분배하는 것을 내포함으로써 이는 본질적으로 이타주의(altruism)의 발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욕구기준 분배는 대체로 이타행동이 유발될 수 있는 상황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는 Schwartz(1975)와 Deutsch(1975)의 연구에서 잘 부연되어 있다. 요컨대 상대방의 욕구 내지는 곤경이 지각되는 조건에서 상대방의 안녕(welfare)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분배원칙이 된다.

이상에서, 공정분배의 원칙으로 형평분배, 균등분배 및 욕구기준 분배의 3가지를 간략히 개관하여 이들 모두가 인간관계에서 분배문제 해결에 서로 다른 측면에서 중요 기능을 하는 분배원칙이됨을 살펴보았다. 또한 상대방과의 인간관계의 성질 즉 이익 추구적인 수단적 관계인가, 그와의 인간관계 자체가 증시되는가에 의해, 그리고 상대방의 욕구 상태에 의해 특정 분배

형태가 선호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는 주어진 상황에 따라, 개인이 어떠한 분배를 하는가라는 분배 행동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제 분배행동 자체가 아니라 분배되어진 보상에 대한 개인의 공정성 지각과 만족 또는 불만족에 초점을 둘 때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받을 수 있다. 즉 보상에 대한 공정감 및 만족, 불만족은 주어진 보상 분배형태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분배형태의 결정요인들(상대방과의 관계성질 및 상대방의 욕구 상태 등)과의 상호작용으로 결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분배된 보상에 대한 공정성 및 만족 또는 불만족에 초점을 둘 때에는 지금까지 고찰한 분배적 정의 이외에 절차적 정의(procedural justice)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게 된다. 분배정의가 보상분배의 기준에 관한 것이라면 절차적 정의는 보상분배를 결정하는 과정 내지는 절차 즉 누가 분배를 하였는가? 왜 그러한 분배를 하였으며 어떻게 분배가 결정되었는가? 등에 대한 공정성을 의미한다. 절차적 정의는 비록 분배정의보다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였으나 이 역시 Aristotle에 까지 소급되어 언급되었고, 분배정의를 문제 삼았던 많은 철학적 고찰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예, Rawls, 1971). 그러나 심리학에서는 최근에 와서야 비로소 개인들이 절차적 공정성에도 관심을 갖고 있으며(Thibaut & Walker, 1975), 개인의 보상분배에 대한 평가가 분배형태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각된 절차적 공정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 주목되었다(예, Deutsch, 1975; Leventhal, 1976).

이러한 절차적 공정성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중의 하나는 소위 ‘발언권(voice)’ (Hirschman, 1970 참조)으로 볼 수 있는 바, 분배절차에 자신의 관여가 그 핵심이 된다. 이러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자신의 관여는 산업 또는 조직상황에서의 만족도에 주요 결정 요인이 되며(Lawler, 1975), 비록 자신 관여의 방법 및 그 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나, 대체로 분배의 결정에 자신의 관여도가 높을 수록 분배절차를 공정하게 지각하여 그 결과 분배된 보상도 공정하고 만족스럽게 생각한다(예, Folger, 1977). 아직도 이러한 과정에 대한 심리적 기제에서는 불분명한 점이 많지만 여하튼 보상에 대한 공정감 내지는 만족, 불만족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이미 앞의 개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분배형태, 분배형태 결정요인 및 절차적 정의가 보상에 대한 개인의 만족 또는 불만족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다른 연구들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있다 하더라도 각기 다른 실험조건에서 각각의 요인의 효과를 검증하였으므로 이 요인들간의 효과를 직접 비교하기가 어렵고 특히 이들간의 상호작용을 파악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분배정의가 역사적 사회문화적 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상기할 때 기존의 연구는 서구 산업사회 특히 미국의 문화 풍토에서의 결과인 바 우리 문화풍토에서의 관련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분배받은 보상에 대한 만족 내지는 불만에 지금까지 개관, 논의하였던 중요 요인들 즉 분배형태, 분배형태의 결정요인 및 절차정의의 요인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며 이들이 서로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는가를 동일 실험내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상기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분배형태결정요인 중에 인간 관계의 요인으로 상대방과의 친숙도, 이타행동의 유발 요인으로 상대방의 욕구, 그리고 절차정의의 요인으로 분배의 자기관여를 선정하여, 분배형태를 보상이 균등 분배로 된 상황에서 투입의 비율로 형평과 불형평으로 조작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들을 검증하였다.

첫째, 상대방이 결핍상태(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 과소보상으로 야기된 불형평조건에서 보상에 대한 불만족은 적을 것이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한 바 처럼 상대방이 결핍상태에 있을 때는 분배가 우세하게 될 것이며, 이때의 자신이 받은 과소보상은 이타적 의미를 지니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로, 상대방과의 관계가 친숙할 때에는, 과소 및 과다보상의 두 불형평조건 모두에서 소원한 관계일 때보다 보상에 대한 불만족이 적을 것이다. 이는 친숙관계에서는 긍정적 인간관계가 중시되어, 형평원칙보다는 균등원칙이 우세해 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분배를 자신이 했을 경우는 타인으로부터 분배를 받았을 때보다 불형평 조건에서의 불만이 적을 것이다. 이는 절차적 정의와 관련된 연구에서 언급되었듯이 자신이 분배에 관여될 수록 분배된 보상을 공정하게 지각하여 불만이 적을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본 연구는 상기 가설들을 가상적 상황을 통한 모의 실험(simulation experiment)에서 검증함으로써 형평이론의 제한점 및 정교화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밖에 선정된 독립변인들간의 복합적 상호작용을 탐색, 확인함으로써 보상의 문제 내지는 교환에 따른 심리적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추후 연구에서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려하였다.

방 법

피험자

본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들은 한양대학교에서 심리학 개론을 수강하는 사범계열 및 공학계열의 1, 2년생으로서 총 300명이었다. 이들 중 응답 누락자와 이들로 인한 각 실험조건의 비 동일 사례수를 동일하게 하는 과정에서 40명이 제외되어 최종적으로 240명이 분석되었다.

변인 조작 및 실험 설계

본 연구에서의 모든 실험상황은 설문지에 기술하여 피험자에게 제시하고 응답을 받는 소위 모의실험(simulation experiment)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목적은 공동작업에서의 보수분배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 조사로 소개되었으며 20~40명의 단위로 집단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때 설문지의 기술내용이 본 연구에서 선정한 독립변인들에 따라 다른 바, 집단에 모든 종류의 설문지를 무선적으로 분배함으로써 각 실험조건에 피험자가 무선할당이 되게 하였다.

1) 독립변인

설문지를 통하여 제시된 상황기술 내용의 기본 형태는 응답자 자신과 다른 한 사람이 함께 일한 후 일에 대한 보수가 각자에게 분배 지급되는 내용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정한 독립변인들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시된 상황 기술내용에 삽입함으로 조작되었다.

i) 결핍요인 : 결핍요인은 비결핍상황과 결핍상황의 2 수준으로 조작되었다. 결핍상황은 공동작업자인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곤란한 처지에 있다는 내용을 첨가하여 조작되었으며 비결핍상황은 상기 결핍정보를 제시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실험설계상 한 피험자에게 4개의 상황이 제시되어 (상대방과의 친숙도(2) × 분배자(2)) 반복측정됨으로 결핍정보는 4 종류를 사용했던 바,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i) 상대방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생계 및 등록금 조달이 곤란한 경우, (ii) 상대방이 아버지가 없고 경제적으로 극도로 곤란하여 등록금 조달이 곤란한 경우 (iii) 상대방이 고아로서 경제적으로 곤란한 경우, (iv) 상대방이 결혼한 사람으로써 부인이 중병에 걸려 치료비가 없는 경우.

ii) 분배형태 : 분배형태는 형평원칙에 입각하여 형평분배된 경우와 파소분

배된 경우 및 과다분배된 경우의 3가지로 조작되었다. 이 때의 조작은 자신과 타인이 일을 한 시간 또는 작업량의 비율을 달리하고 즉 투입(Input)을 달리하고 보상의 분배는 모든 조건에서 5 : 5로 균등분배를 함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명세하면 다음과 같다.

형평분배 : 자신과 상대방의 일을 한시간 또는 작업량의 비율이 5 : 5이고 보수분배가 5 : 5인 경우.

과다분배 : 자신과 상대방의 일을 한 비율이 4 : 6, 즉 자신이 상대방보다 적게 일을 했는데 보상분배가 5 : 5인 경우.

과소분배 : 자신과 상대방의 일을 한 비율이 6 : 4, 즉 자신이 상대방보다 더 많은 일을 했는데 보상분배가 5 : 5인 경우.

iii) 친숙도 : 상대방에 대한 친숙도는 친숙한 경우와 소원한 경우의 2 수준으로 조작되었다. 이때 친숙조건은 어렸을 때부터 잘 아는 사이거나 대학에 들어와서 매우 가깝게 지내는 내용을 삽입하여 조작되었고 소원한 경우는 과거 전혀 알지 못하다가 우연히 이번의 공동작업에서 만난 사람으로 조작되었다.

iv) 분배자 요인 : 분배자 요인은 누가 보상을 분배했는가로써 공동작업 결과의 보상을 자신이 분배했을 경우와 제삼자(고용자)로부터 분배를 받는 경우로 조작되었다.

이상과 같이 조작된 실험조건 중에서 예를 들어 결핍상황에서 분배형태가 과다분배이며 친숙도가 친숙조건이며, 분배자 요인이 자신 분배인 경우에 기술된 상황은 다음과 같다.

4월달에 B라는 같은 과 학생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했으며, 사고차량은 뺑소니를 쳤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사고 이후 B의 아버지는 계속 혼수상태에 빠져 있었으며 식물인간과 마찬가지로였다. 아버지는 조그만 사업을 했으며, 가족의 생계를 전적으로 도맡았다. 사고가 난 후에 B의 아버지가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고 수입이 끊어져 생계마저 막연하게 되고 뺑소니 차량도 소식이 잠잠하다. 그래서 B는 2학기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여름방학동안에 아르바이트를 했다. 일자리가 마땅치 않고 구하기 힘이 들어 서적 외판을 했다. 거기에서 당신은 B를 만나 8주간의 일을 돌이 하고 80만원의 급여를 받기로 했다. 일을 하는 도중에 B의 사정을 자세히 알게 되었다. 일을 하는데 당신은 24일, B는 33일 정도의 일을 했다.

당신과 B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동기동창으로 지내온 절친한 사이이다. 일이 끝난 후에 사무실 직원으로부터 당신은 8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사무실 직원은 80만원을 주면서 재량껏 분배하라고 했다. 그래서 당신은 B에게 절반인

40 만원을 주었다.

2) 종속 변인

본 연구에서 선정한 주요 종속변인은 제시된 각 상황에서 자신이 받은 보상에 대한 불만정도이었다. 이때 불만도는 '전혀 불만없다'를 0, '매우 불만이다'를 10으로 한 11점 동안 척도상에 평정하게 하였다.¹⁾

3) 실험설계

본 연구는 상기한 독립변인들에서 결핍요인과 분배형태는 피험자간 요인으로 하였고 나머지 친숙도와 분배자 요인은 피험자내 요인으로 하였다. 따라서 동일 피험자에게 친숙도(2) × 분배자(2)로 조합되는 4 개 상황이 반복 제시되어 측정됨으로 4 개의 공동작업의 종류를 제시하여 이 각각의 공동작업상황에 친숙-소원, 자신분배-제삼자 분배의 정보를 삽입하여 조작하였다.

이때 공동작업의 종류에 조작된 독립변인효과에 4 개의 공동작업상황에 따른 효과가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험자에 따라 4 개의 공동작업상황에 조작되는 4 개의 실험조건을 순환(rotation)시킴으로써 역 균형(Counter balance)을 이루게 하였다.

피험자의 배정은 결핍요인(2)과 분배형태(3)가 피험자간 변인이므로 6 개 집단으로 구성되는 바 각 집단에 40 명이 무선배정되었다. 자료의 처리는 결핍요인(2) × 분배형태(3) × 친숙도(2) × 분배자(2)의 요인설계로서 친숙도 및 분배자가 반복된 변량분석을 사용하여 본 연구에서 선정한 가설들을 검토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단순 주효과 내지 단순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을 추가하였다.

결 과

피험자들이 각 실험조건에서 분배된 보상에 대한 불만족을 '전혀 불만없다'를 0, '매우 불만이다'를 10인 11점 척도에 평정한 결과를 모든 독립변인별로 정리해 보면 <표 1>과 같다.

1) 이 밖에도 분배에 대한 만족도, 공정감, 미안감, 재분배시의 공정 분배 비율 등을 평정하게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불만도만을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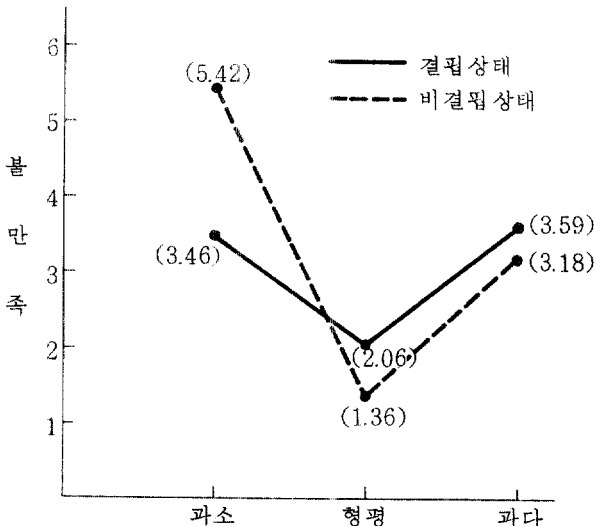
〈표 1〉 결핍, 분배형태, 친숙도 및 분배자별 보상불만족 평균

분배형태	비 결핍					결핍					총 계
	친숙		소원		계	친숙		소원		계	
	자신 분배	제삼자 분배	자신 분배	제삼자 분배		자신 분배	제삼자 분배	자신 분배	제삼자 분배		
형 평	1.4	1.15	1.2	1.7	1.36	2.13	2.00	2.05	2.05	2.06	1.71
과 다	2.3	3.75	3.45	3.23	3.18	3.30	3.25	3.20	4.60	3.59	3.39
과 소	4.05	5.15	5.38	7.10	5.42	2.48	3.28	4.28	3.80	3.46	4.44
계	2.58	3.35	3.34	4.01	3.32	2.63	2.84	3.18	3.48	3.03	3.18

* 점수범위는 0 ~ 10으로 점수가 클수록 불만도가 큼.

〈표 1〉을 변량분석한 결과, 결핍조건과 비결핍조건에서의 보상에 대한 불만도 평균은 각각 3.03, 3.32로 거의 유사하여 통계적 의의는 없었다($F_{(1,234)} = 1.12, MSe = 17.80, P > .10$). 한편 분배형태에 따른 불만도 평균은 형평분배에서 1.71로 가장 낮았고, 그리고 불형평분배인 과다 및 과소분배에서는 각각 이보다 높은 3.39, 4.44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보아, 형평이론이 지지됨을 알 수 있다($F_{(2,234)} = 34.03, MSe = 17.80, P < .01$).

그러나 이러한 형평 및 불형평에 따른 불만도는 결핍요인과 상호작용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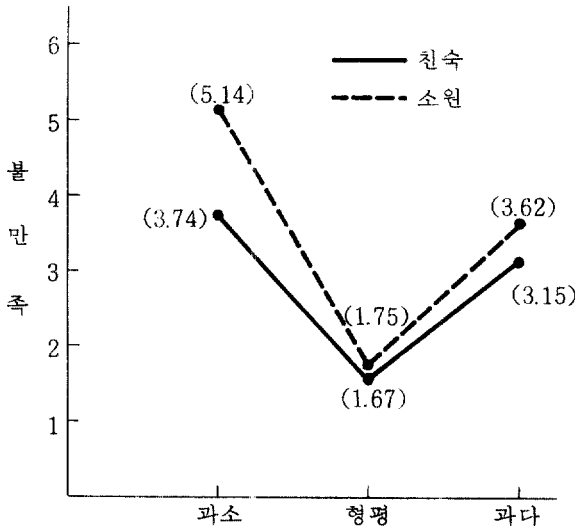
〈그림 1〉 결핍 및 분배형태별 불만족 평균

것으로 나타나 ($F_{(2,234)} = 9.55, MSe = 17.80, p < .01$), 상대방의 욕구에 대한 정보가 있을 때와 그러한 정보가 없을 때에 형평, 불형평에 따른 불만족이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는 바, 이를 그림으로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보상에 대한 불만족은 과소보상에서는 결핍조건이 비결핍조건보다 낮으나 (각각 평균 ; 3.46, 5.42), 형평 및 과다보상의 경우에는 역으로 결핍조건이 비결핍조건보다 높은 추세를 보였다(형평 ; 2.06, 1.36. 과다 ; 3.59, 3.18). 그러나 각 분배형태에서의 결핍요인의 단순주효과를 검증한 결과 과소보상에서만 유의하였고 ($F_{(1,234)} = 17.27, MSe = 17.80, p < .01$), 형평 및 과다분배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형평; $F_{(1,234)} = 2.21$, 과다; $F_{(1,234)} = 0.75, MSe = 17.80, p > .10$). 따라서 결핍요인의 효과에 대한 가설, 즉 상대방이 결핍상황에 있을 경우, 과소분배에서 보상에 대한 불만족이 적을 것이라는 가설이 지지되었다.

<그림 1>에서 또한 주목되는 것은 비결핍조건에서는 과소보상과 과다보상의 두 불형평에 따른 불만족이 전자의 경우가 훨씬 높아 ($q_{(3,234)} = 17.13, p < .01$) 비대칭을 이루고 있으나 결핍조건에서는 두 불형평에 따른 불만족이 거의 같은 정도로 나타나($q_{(3,234)} = 0.30$), 대조를 이룬다.

한편 친숙도 요인의 주효과가 유의하여 ($F_{(1,234)} = 22.63, MSe = 4.48,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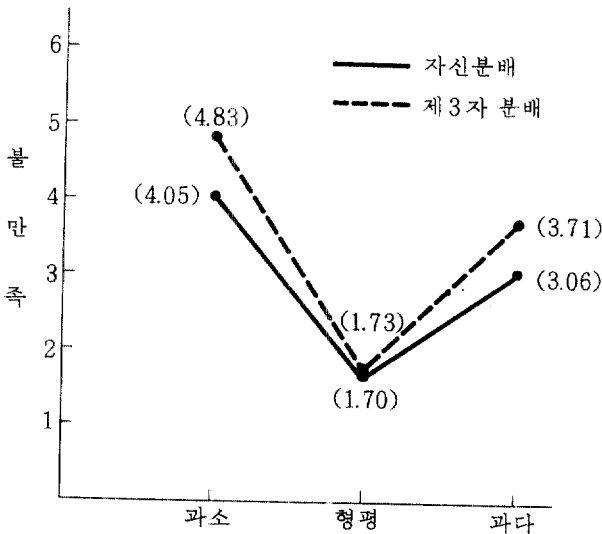


<그림 2> 분배형태 및 친숙도별 불만족 평균

(.01), 상대방과의 관계가 친숙한 조건이 ($\bar{X} = 2.85$), 소원한 조건 ($\bar{X} = 3.50$)보다 불만이 적었다. 그러나 이러한 친숙도의 효과는 분배형태와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F_{(2,234)} = 8.21, MSe = 3.18, p < .01$), 이를 그림으로 정리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에서 잘 드러나듯이, 친숙조건이 소원조건보다 과소분배 및 과다분배의 두 불형평조건 모두에서 불만이 적음을 알 수 있다. 각 분배형태에서의 친숙요인의 단순 주효과를 검증한 결과 형평조건에서는 유의하지 않았고 ($F_{(1,234)} = 0.12, MSe = 4.48, p > .10$), 과소분배에서는 $F_{(1,234)} = 35.00$ 으로 1% 수준에서, 과다분배에서는 $F_{(1,234)} = 3.94$ 로 5%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이 결과는 친숙관계에서는 불형평에 따른 불만이 감소할 것이라는 본 연구의 두번째 가설을 지지하는 것이다.

분배자 요인, 즉 자신이 분배했을 때와 제삼자로부터 분배를 받았을 때의 보상에 대한 불만족의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F_{(1,234)} = 15.63, MSe = 3.65, p < .01$), 자신이 분배했을 때의 불만족($\bar{X} = 2.94$)이 제삼자 분배했을 때보다 ($\bar{X} = 3.42$) 적게 나타났다. 분배자 요인 또한 분배형태와 상호작용하여 ($F_{(2,234)} = 7.07, MSe = 3.65, p < .01$), 이를 정리하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분배형태 및 분배자 요인별 불만족 평균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분배자 요인과 분배형태의 상호작용은 본 연구의 세번째 가설 즉 불형평에 따른 불만은 자신이 분배에 관여되었을 때가 관여되지 않았을 때보다 적을 것이라는 가설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분배형태에 따른 분배자 요인의 단순 주효과를 검증한 결과 형평분배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F_{(1,234)} = 0.02$, $MSe = 3.65$, $p > .10$), 과소분배와 과다분배에서는 제삼자 분배가 자신 분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불만이 높아(과다: $F_{(1,234)} = 8.33$, $p < .01$, 과소: $F_{(1,234)} = 11.99$, $p < .01$; $MSe = 3.65$), 불형평에 따른 불만은 자신 분배에서 적을 것이라는 세번째 가설이 지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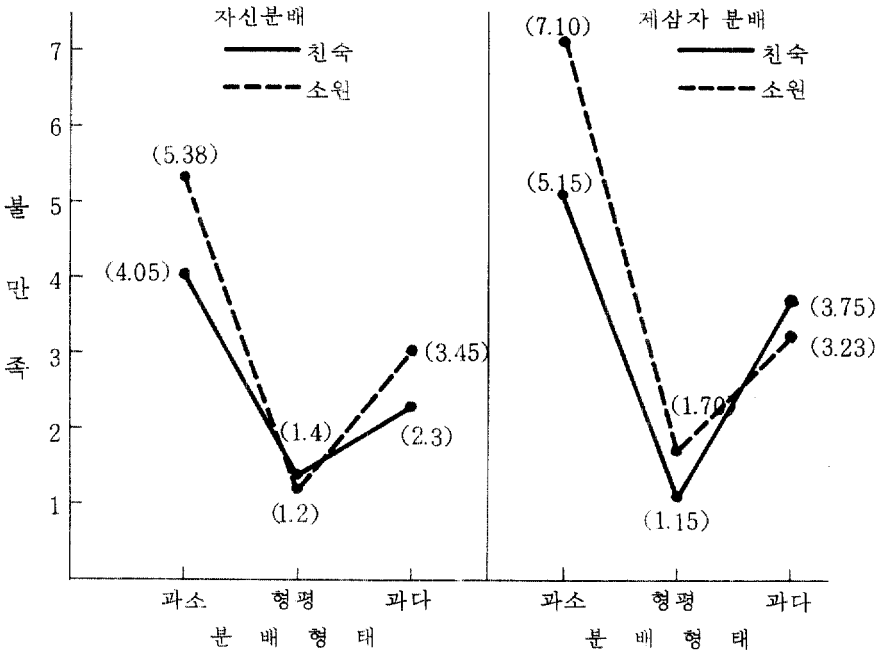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변량분석결과 결핍요인×분배형태×친속도×분배자의 비교적 복잡한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_{(2,234)} = 7.63$, $MSe = 4.47$, $p < .01$). 이는 분배형태×친속도×분배자의 3원 상호작용이 비결핍조건과 결핍조건에서 서로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비결핍조건과 결핍조건의 각각에서 분배형태×친속도×분배와의 단순 3원 상호작용을 검증한 결과, 비결핍조건에서 $F = 4.15$, 결핍조건에서도 $F = 4.15$ 로 동일하게 나타나 두 조건 모두 5% 수준에서 유의하였다($df = 2/234$, $MSe = 4.47$). 따라서 4원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이들 3원 상호작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선 비결핍조건에서의 분배형태×친속도×분배자의 상호작용을 고찰해 볼 때, 여러 각도에서 해석해 볼 수 있으나, 편의상 분배자 요인에 따라 분배형태×친속도의 2원 상호작용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개념화하여 이를 그림으로 정리하면 〈그림 4〉와 같다.

〈그림 4〉를 볼 때 불형평분배에 대한 불만에 친속도 요인이 주는 영향이 자신이 분배했을 때와 제삼자가 분배했을 때에 서로 다를 수 있다. 즉 자신이 분배했을 때에는 과소분배와 과다분배의 모든 불형평조건에서 친속도가 중요하여, 친속조건이 소원조건보다 불만이 적으나, (단순 주효과; 과소 $F = 7.89$, $p < .01$, 과다: $F = 5.91$, $p < .05$, $df = 1/468$, $MSe = 4.47$) 제삼자로부터 분배를 받은 경우에는 과소분배에서만 친속조건이 불만이 적고(단순주효과; $F = 17.00$, $df = 1/468$, $MSe = 4.47$, $p < .01$), 과다분배에서는 친속도에 따른 불만의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비결핍조건에서의 이러한 3원 상호작용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4원 상호작용이 유의하였기 때문에 결핍조건에서의 3원 상호작용과는 다

〈비 결핍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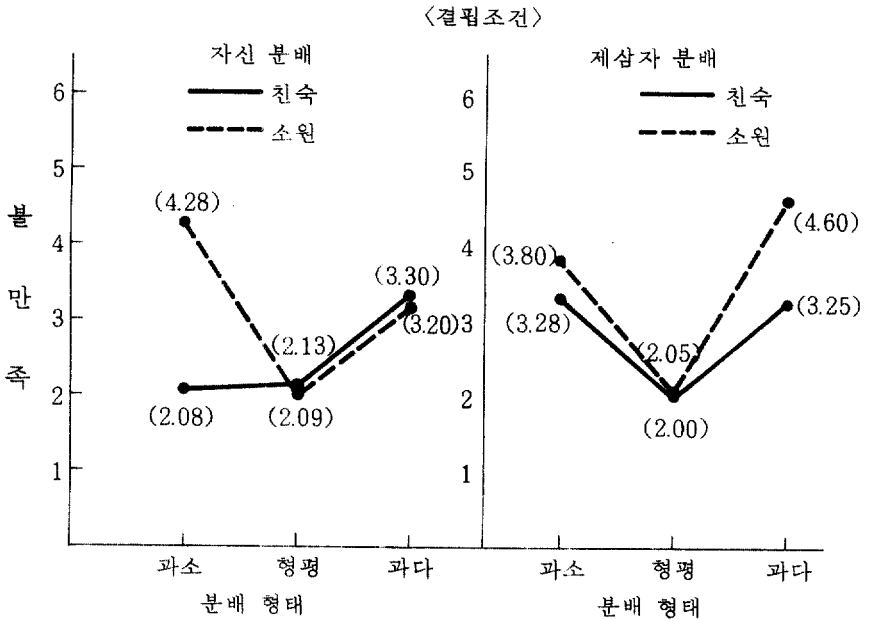


〈그림 4〉 비결핍조건에서의 분배자, 분배형태 및 친숙도별 불만족 평균

를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결핍조건에서의 분배형태×친숙도×분배자의 3원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를 정리하면 〈그림 5〉와 같다.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결핍조건 즉 상대방이 경제적 곤경에 처해 있는 경우에는, 친숙도 요인이 자신분배일 때는 과소분배에서만 효과가 있는 반면에 (단순 주효과: $F_{(1,468)} = 14.48$, $MSe = 4.47$, $p < .01$), 제삼자 분배일 때는 과다분배에서만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단순 주효과: $F_{(1,468)} = 8.15$, $MSe = 4.47$, $p < .01$). 이는 앞에서 언급하였던 비결핍조건에서의 3원 상호작용의 내용과 다른 바, 이 때문에 4원 상호작용이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지금까지 살펴본 비결핍과 결핍조건에서의 3원 상호작용(형평요인×친숙도×분배자)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4원 상호작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즉 자신이 분배한 과소보상에 대한 불만은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곤란한



〈그림 5〉 분배형태 및 친숙도, 분배책임별 불만족 평균
(결핍 상태)

가에 관계없이 친숙한 사람일 때가 소원할 때보다 적다. 그러나 이러한 친숙도의 효과는 자신이 분배한 과다보상에 대하여는 비결핍조건에서만 나타나고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타인으로부터 과소보상을 받았을 때는 비결핍조건에서 상대방이 친숙한 경우가 소원할 때보다 불만이 적으나 결핍조건에서는 친숙도 효과가 없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타인으로부터 과다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결핍조건에서 친숙도 효과가 있고, 비결핍조건에서는 친숙도에 따른 불만의 차이가 없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이 설정한 가설들을 검증함으로써 인간의 사회행동 일반을 형평의 유지로 설명하려는 현재의 형평이론의 한계 내지는 정교화의 필요성

을 검토하려는 데 있는 바, 여기에서는 분석된 결과들을 이러한 맥락에서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그 의의를 논하고자 한다.

첫째로, 상대방이 결핍상태에 있는 경우, 형평원칙에 따른 과소보상에 대한 불만이 적을 것이라는 가설은 분배형태×결핍요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지지되었다. 즉 형평분배와 과다분배의 경우에는 비결핍조건과 결핍조건의 불만측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과소분배에서는 비결핍 조건에서의 불만($\bar{X}=5.42$)보다 결핍조건이 훨씬 낮아($\bar{X}=3.46$) 유의한 차를 보여 본 가설을 지지하였다. 이는 상대방이 결핍조건에 있을 때 자신의 과소보상은 이타적 행동의 의미가 되므로 비결핍조건의 상대방과의 과소보상이 야기시키는 감정과는 근본적으로 의미가 다른, 보람감과 같은 긍정적 감정이 유발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형평이론에서 주장하듯이 과소분배의 불형평에 따른 심리적 경험내용이 분노라는 정서로 대표되며, 이는 불쾌한 긴장이므로 개인은 이를 해소하도록 동기화된다는 주장(Walster 등, 1973)은 한계를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결과에서 다른 각도에서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비결핍조건에서는 과소분배와 과다분배가 불형평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전자의 불만이 후자보다 높은 데 반하여 (각각의 평균, 5.42, 3.18) 결핍조건에서는 과소 및 과다의 두 불형평간에 불만의 차이가 거의 없는 점이다(각각의 평균 3.46, 3.59). 비결핍조건에서 과소분배의 불만이 과다분배에서 보다 크다는 결과는 Adams(1963, 1965)가 언급한 “이기성”(egoism)을 형평이론에 포함시킴으로써 적절히 설명될 수 있다. 즉 개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불형평(과소분배)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불형평(과다분배)을 더 적게 느낀다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결핍조건에서 두 불형평에서 불만의 차이가 없다는 결과는 바로 이러한 이기성이 감소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어 상대방의 결핍상황은 이타성을 유발하는 상황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상기 결과를, 욕구에 따른 분배도 결국 욕구를 투입으로 고려하는 형평분배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Walster, 1976) 형평이론 만능적인 입장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 즉 결핍조건에서는 상대방의 투입에 결핍요인이 추가되어 상대적으로 상대방의 투입이 증가됨으로서, 이미 자신의 과소보상이 불형평이 아니라 형평분배가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이타행동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보람감과 같은 긍정적 감정의 유발

을 설명하기는 곤란하다.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형평이론을 지지해 본다면 보람감을 자신의 성과요인 속에 포함시켜 설명해 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형평이론에서의 성과요인은 투입요인과 마찬가지로 개인에게 지각된 모든 성과를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왜 결핍된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투입요인에 상대방의 욕구를 추가시키면 자신의 성과에 보람감이 추가되는지는 형평이론 자체가 설명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인간의 이타적 측면을 고려할 수 밖에 없으며 때문에 인간의 이기적 측면을 대명제로 하는 형평이론의 적용은 한계가 있게 된다. 또한 결핍조건에서의 과소분배를 욕구기준 분배 즉 이타적인 의미로 해석할 때 비록 본 연구에서 가설로 설정하지는 않았으나, 전체 변량분석 결과 중다상호작용에서 나타났던 결핍조건 내에서의 친숙도×분배형태의 단순 2원 상호작용이 잘 설명될 수 있다. 결핍조건 내에서 분배형태별 친숙과 소원에서의 불만족 평균을 보면 형평분배에서 각각 2.06, 2.05, 과다분배에서는 3.28, 3.90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과소분배에서는 친숙이 2.88, 소원이 4.04로 친숙의 불만이 유의하게 낮았다(단순 주효과; $F_{(1,234)} = 17.27$, $MSe = 17.80$, $p < .01$). 이는 이타행동의 가장 중요한 변인이 감정이입(empathy)이며 친숙한 사람일 수록 감정이입이 잘 될 수 있다고 볼 때 당연한 결과가 된다.

한편 두번째의 가설 즉 상대방과 친숙한 경우에는 불형평에 따른 불만이 적을 것이라는 가설도 친숙도 요인과 분배형태와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지지되었다. 즉 각 분배형태에 따른 소원조건과 친숙조건에서의 불만을 비교해 볼 때 친숙조건이 소원조건보다 과소분배 및 과다분배 모두에서 모두 불만이 낮았다(그림 2 참조). 이 결과는 친숙관계에서는 상대방과의 긍정적인 인간관계 자체가 증시되고, 이에 따라 형평보다는 균등분배가 우세해 질 것이라는 본 가설의 근거를 지지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결과는 인간관계가 친숙한 경우, 불형평에 따른 효과가 적다는 것으로, 그만큼 친숙관계에서는 형평이론의 적용이 적절하지 못함을 시사해 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분배형태의 주효과가 유의하여 형평분배가 불만이 가장 적고 ($\bar{X} = 1.71$) 불형평조건인 과소분배와 과다분배의 불만이 높아 (각각 $\bar{X} = 3.39$, $\bar{X} = 4.44$) 형평원칙이 중요함을 알 수 있고, 더우기 친숙관계에서 비록 두 불형평 모두에서 불만이 경감은 되지만 이때에도 형평조건의 불만이 ($\bar{X} = 1.67$) 과소 및 과다조건 (각각 3.74, 3.64)보다 낮아 친숙한 관계 일지라도 형평원칙이 적용됨을 보여준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친숙조건에서의 형평여부에 따른 효과는 다음과 같은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로, 본 연구에서 피험자들에게 제시한 가상적 상황의 성질이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공동작업을 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가상적 상황에서 피험자들에게 요구되는 역할수행(role taking)을 할 때, 그 일차적 관심이 경제적 이익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친숙관계에서도 형평여부의 효과가 있다는 결과는 쉽게 이해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형평에 따른 불만이 감소했다는 것은 보다 큰 의의가 있게 된다. 따라서 경제적 관심이 주관심이 아닌, 예컨대 일 자체에서 만족을 찾으려는 내적동기(intrinsic motivation)가 우세한 경우에도 형평이론이 주장하는 불형평의 효과가 있겠는가라는 추후 검토해 볼 중요 문제일 것이다.

둘째로는 본 연구가 갖는 가장 큰 제한점인 바, 독립변인들의 조작이 실제의 실험상황으로 조작된 것이 아니라 가상적 상황에서의 역할수행을 요구한 모의실험이라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제한점은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전체 결과들의 타당성과 직결되는 것으로, 실제 상황에서도 이와 같은 결과들이 나타나겠는가를 문제삼을 수 있겠다. 그러나 본 연구와 유사한 문제를 다룬 기존연구에서 가설적 상황에서의 결과와 실제의 실험 상황에서의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연구(예, Wicker & Bushweiler, 1970)를 볼 때 어느정도의 타당성을 부여할 수는 있겠으나 여하튼 이 문제 역시 추후 연구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문제가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상황을 통한 친숙도의 조작이 실제 친숙관계와 같은 정도로 조작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대체로 형평대 균등분배의 우세성을 검토한 연구들에서 상대방과의 실제의 상호작용이 제한된 상황 예컨대 상대방과 직접 대면이 되지않는 상황에서는(예, Leventhal & Lane, 1970) 형평분배가 우세한 반면에, 직접 대면관계 혹은 앞으로 상대방과의 지속적 관계가 예측되는 상황을 다룬 연구들(예, Kahn, 1972, Wiggins, 1966)의 결과에서는 균등분배가 우세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면 본 연구의 친숙조건 조작은 실제의 인물이 아닌 가상적 인물이었고 또한 상대방과 직접적인 대면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친숙조건에서도 비교적 큰 불형평 효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친숙도 조작이 피상적이 아닌 보다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상황에서도 형평원칙

이 적용될 것인가는 본 연구결과 친숙도의 피상적 조작에도 불구하고 불형평에서의 불만이 감소했음을 볼 때 실제의 친밀관계에서는 형평여부의 효과가 극히 미약하거나 없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친숙 관계에서도 형평이 불형평보다 불만이 적다는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또 하나의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은 본 연구의 제한점이다. 즉 본 연구에서 형평, 불형평 분배의 조작은 균등분배된 조건에서 투입량을 달리하였기 때문에 이때의 형평분배는 균등분배와 구분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형평분배에서 불만이 가장 적었다는 것은 엄밀히 말해 형평적 균등분배에서 불만이 적었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때 이러한 형평이 형평이론에서 주장하는 모든 형평을 대표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형평분배는 그 이외에도 상대방보다 보상이 적은 형평(예, 자신과 상대방의 투입비율이 4 : 6 이고 보상비율이 4 : 6 일 때)과 이와는 반대로 상대방보다 보상이 많은 형평(즉, 자신과 상대방의 투입비율이 6 : 4 이고 보상비율이 6 : 4 일 때) 모두가 형평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형평분배일지라도 앞서 언급한 형평분배의 종류에 따라 만족 내지는 불만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형평이론은 과소보상 불형평이 과다보상 불형평에서보다 불만이 크다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기성(egoism)을 첨가하였다(Adams, 1965). 이는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려고 한다는 명제가 형평이론의 기본 출발점이므로 (Walster 등, 1973) 형평이론 체제에 모순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이기성은 불형평조건에서만 아니라 형평조건에서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Wicker와 Bushweiler(1970)는 형평분배일지라도 자신의 보상이 상대방보다 큰 형평일 수록 유쾌하게 느끼고 또한 더욱 공정하게 지각됨을 밝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만일 자신의 보상이 적은 형평분배로 대치한다면 본 연구의 친숙조건 및 결핍조건 모두에서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형평분배보다 불만이 크다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음을 쉽게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은 비록 상관연구이기는 하나 Peterson(1981)의 연구에서도 지지된다. 그는 친밀관계에서 형평일 때가 불형평일 때보다 그 관계가 지속되고 행복함을 느낀다는 연구(Walster, E., Walster, G. W. & Bersheid, E., 1978)에서, 그때의 형평은 성과가 모두 같은 형평과 성과가 다른 형평이 복합되어 있음을 지적하여 이를 분리하여 부부를 대상으로 조사 연구를

하였다. 그 결과 균등형평집단이 불균등 형평집단보다 그들의 관계를 더욱 행복하고 안정된 것으로 지각하였다.

요컨대 본 연구 결과에서 형평분배의 불만이 전반적으로 적다는 결과가 형평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또 하나의 가설 즉 자신이 분배했을 때가 타인으로부터 분배를 받았을 때보다 불형평조건에서의 불만이 적을 것이라는 가설 또한 지지되었다. 이는 <그림 3>에서와 같이 제삼자 분배조건보다 자신분배조건이 형평분배를 제외한 과소분배와 과다분배 모두에 유의한 불만의 감소를 보이는 분배형태×분배자의 상호작용으로 지지된다. 본 연구에서 분배자요인 즉 자신분배 대 타인분배를 문제삼은 것은 소위 절차적 정의에 입각하여 분배의 결정에 자신의 관여도가 보상에 대한 공정감 내지는 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자신분배와 타인분배의 문제는 이러한 이론적 맥락에서 뿐만이 아니라 실제 사회현실의 맥락에서 보면 더욱 큰 의미를 갖게 된다. 즉 사회 현실속에서의 분배상황은 분배를 하는 경우와 분배를 받는 경우로 대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분배를 하는자, 즉 주는자와 분배를 받는자가 분배된 보상에 대한 공정성, 만족 및 불만족을 달리 느낄 수 있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주는자와 받는자 간의 수 많은 갈등 속에 기저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될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물론 형평이론이 바로 이러한 점을 잘 지적하고 있다. 즉, 형평 또는 불형평의 지각은 개인이 '지각하는' 자신과 상대방의 투입과 성과에 따른다는 것으로 개인에 따라 투입과 성과에 대한 지각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서로간의 갈등이 초래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모든 결과가 상기한 형평이론의 입장에서 설명될 수 있다. 즉 결핍상황에서의 불형평의 감소는 상대방의 투입요인에 결핍을 추가하거나 작업량의 비중을 약화하기 때문에, 그리고 친숙도 요인에 따른 효과는 상대방의 투입요인에 친구라는 사실 자체를 첨가하거나 작업량의 비중을 약화하기 때문에, 또한 분배자 요인의 효과는 주는 자와 받는 자의 지각된 투입 또는 성과요인이 다르기 때문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모든 문제는 개인이 자신과 타인의 가능한 모든 투입요인과 성과요인에 어떻게 비중을 두는가로 환원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형평이론은 언제 어떠한 요인이 비중을 갖게 되며 왜 그렇게 되는가에 대한 설명이 결여되어 있

다. 이는 형평이론이 자체이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형평이론은 주어진 현상을 잘 설명, 예언하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아무런 설명을 못하는, 소위 순환적 설명이라는 논리적 오류속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형평이론은 개인의 투입과 성과요인들의 비중부여에 대한 설명과 예언을 할 수 있도록 정교화되어야 좋은 이론으로서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형평만을 유일한 공정분배 원칙으로 간주하는 형평이론 자체로는 어떻게 친숙도와 결핍요인이 투입의 비중에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예언과 설명이 되지 않는다. 즉 본 연구에서 처럼 상대방과의 인간관계의 성질 또는 이타행동을 유발하는 요인들에 따라 균등분배 내지는 욕구기준에 따른 분배가 이루어진다는 가정에서 적절히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형평이론이 잘 적용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를 확인해 주는 의미를 내포하여, 그 이론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형평이론을 타당하게 하고, 형평요인과 타요인간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형평이론을 보다 정교화한다는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인간의 사회적 관계를 친숙세계와 소원세계, 또는 이기적 상황과 이타적 관계로 대분해 볼 때 보상만족의 결정요인이 달라지는바, 형평 여부는 주로 소원관계, 이기적 상황에서 중요 요인이 되나, 친숙관계, 이타적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해 준다. 이에 더하여 주는 입장과 받는자의 입장에 따라 분배된 보상에 대한 공정성을 달리 지각하고 만족 불만족이 다를 수 있는 바 지금까지 논의에서 언급하였던 본 연구의 제한점을 고려한 추후 연구가 요청된다.

참 고 문 헌

- 韓德雄, 組織行動의 動機理論. 서울. 法文社, 1983.
- Adams, J. S. Toward an understanding of inequity.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1943, 67, 422-436.
- Adams, J. S. Inequity in social exchange.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 New York: Academic Press, 1965, 267-299.
- Adams, J. S. & Freedman, S. Equity theory revisited: Comments and annotated bibliography. In L. Berkowitz & E. Walster (Eds.),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9) New York: Academic Press, 1976.
- Blau, P. M. *Exchange and power in social life*. New York: Wiley, 1964.
- Cohen, R. L. & Greenberg, J. *Equity and justice in social behavior*. New York: Academic Press, 1982.
- Deutsch, M. Equity, equality, and need: What determines which value will be used as the basis for distributive justice? *Journal of Social Issues*, 1975, 31, 137-149.
- Festinger, L. *A theory of cognitive dissonance*. Evanston, Ill: Row, Peterson, 1957.
- Folger, R. Distributive and procedural justice: Combined impact of "voice" and improvement on experienced inequ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77, 35, 180-109.
- Hirschman, A. O. *Exit, voice and loyalty: Responses to declines in firms, organizations, and state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0.
- Homans, G. *Social behavior: Its elementary forms*.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1961.
- Kahn, A. Reactions to generosity or stinginess from an intelligent or stupid work partner: A test of equity theory in a direct exchange relationshi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72, 21, 116-123.

- Lawler, E. J. An experimental study of factors affecting the mobilization of revolutionary coalitions. *Sociometry*, 1975, 38, 163-179.
- Lerner, M. J. The justice motive: Some hypotheses as to its origins and forms. *Journal of Personality*, 1977, 45, 1-52.
- Lerner, M. J. The justice motive in social behavior: An Introduction. *Journal of Social Issues*, 1975, 31, 1-19.
- Leventhal, G. Allen, J. & Kemelgor, B. Reducing inequity by reallocating rewards. *Psychonomic Science*, 1969, 14, 295-296.
- Leventhal, G. S. *Fairness in social relationships*. Morristown, N. J.: General Learning Press, 1976.
- Leventhal, G. & Anderson, D. Self-interest and the maintenance of equ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70, 15, 57-62.
- Leventhal, G. & Bergman, J. Self-depriving behavior as a response to an unprofitable inequity.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969, 5, 153-161.
- Leventhal, G. & Lane, D. Sex, age, and equity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70, 15, 312-316.
- Leventhal, G. & Michaels, J. W. Extending the equity model: perception of inputs and allocation of reward as a function of duration and quantity of perform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69, 12, 303-309.
- Leventhal, G. S. Weiss, T. & Long, G. Equity, reciprocity, and reallocating rewards in the dya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69, 13, 300-305.
- Morgan, W. & Sawyer, J. Bargaining expectations and the Preference for equality over equ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67, 6, 139-149.
- Sampson, E. E. Justice as equality. *Journal of Social Issues*, 1975, 31, 45-64.
- Schwartz, S. H. The justice of need and the activation of humanitarian norms. *Journal of Social Issues* (vol. 31), 1975.
- Shapiro, E. G. Effects of expectations of future interaction on reward allocations in dyads: Equity or equ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 Psychology*, 1975, 31, 873-880.
- Thibaut, J. & Walker, L. *Procedural justice: A psychological analysis*. Hillsdale, N. J.: Erlbaum, 1975.
- Tumin, M. Some principles of stratification: a Critical analysi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953, 18, 387-384.
- Tymin, M. On inequal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963, 28, 19-26.
- Walster, E. Walster, W. G., & Berscheid, E. *Equity theory in research*. Boston: Allyn & Bacon, 1978.
- Walster, E., Berscheid, E., & Walster, G. W. Equity Theory: Toward a General Theory of Social Interaction: In L. Berkowitz & E. Walster (Ed.), *Advanced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9, New York: Academic Press, 1976.
- Walster, E. Berscheid, E. & walster, G. W. New directions in equity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73, 25, 151-176.
- Wicker, A. W. & Bushweiler, G. Perceived fairness and pleasantness of social exchange situations: Two factorial studies of in inequ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76, (vol. 15) No. 1, 63-75.
- Wiggins, J. Status, differentiation, external Consequence and alternate reward distributions. *Sociometry*, 1966, 29, 89-103.

ABSTRACTS

Effects of Distributive Justice and Procedural Justice on Dissatisfaction with Rewards

Chang, Sung-soo

Department of Education, Han Yang University

In this study, reviewing some literatures on distributive and procedural justice in social psychology, it was examined the following three hypothesis by a simulation experiment.

First, when the coworker's needs are recognized, the person's dissatisfaction with disadvantageous inequity (under reward) will be less than when the needs are not recognized. Secondly, in familiar relationship with coworker, both dissatisfaction with disadvantageous and advantageous inequity will be less than in unfamiliar relationship. Lastly, when the rewards are allocated by him/her-self, both dissatisfaction with disadvantageous and advantageous inequity will be less than when rewards are allocated by another person.

Inependant variables were coworker's need (non-need, need), familiarity (Familiar, unfamiliar), distribution type (under, equitable, over reward) and allocator (self, another person). All the independant variables were manipulated in hypothetical dyadic cowork situation where the rewards are divided equally by including informations of the coworker's need, familiarity with coworker, the amounts of each other's work, and the allocator.

The experimental design was coworker's need (2) x distribution type (3) x familiarity (2) x allocator (2) factorial design with repeated last two factors. Supporting all the hypothesis, the results showed 2 way interactions of distribution type with coworker's need, familiarity, and allocator respectably as predicted. And somewhat complex interaction (4 way interaction) effect was also significant.

The implication of the results were discussed in the context of limits of equity theory and some further research problems were suggested.